

루키 3인방 내야 새 바람 불어넣는다

KIA 제주도 마무리 캠프

정해원 "매 시즌 20홈런 이상 목표"
김도월 "주루·수비 능력 보여줄 것"
송원대 출신 김재현 "배움 즐거워"



KIA 루키 3인방 김도월(왼쪽부터)·정해원·김재현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힘들지만 재미있다"며 '아기호랑이'들이 프로 무대를 위해 발톱을 갈고 있다. KIA 타이거즈의 제주도 마무리캠프에는 3명의 2023 신인 야수가 참가하고 있다. '우타거포형 3루수'인 휘문고 출신의 정해원(185cm)과 주력이 뛰어난 188cm의 장신 유격수 김도월(서울고), 어깨와 주력이 좋은 광주 출신의 김재현(송원대·176cm)이 내야 새바람을 준비하는 루키들이다.

프로 첫 캠프에 대해 세 선수는 입을 모아 "힘들다"고 말한다. 장거리 러닝 등 강도 높은 체력 훈련에 고개를 저지만, 이들은 또 "재미있다"고 말한다.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매일 야구를 배우는 게 유익한 일이다.

프로 첫 캠프에 대해 세 선수는 입을 모아 "힘들다"고 말한다. 장거리 러닝 등 강도 높은 체력 훈련에 고개를 저지만, 이들은 또 "재미있다"고 말한다.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매일 야구를 배우는 게 유익한 일이다.

정해원은 신인 환영식 때 "매 시즌 20홈런 이상 칠 수 있는 타자가 되고 싶다. KIA 3루수 하면 이번호 코치님과 제가 떠오를 수 있게 하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리고 이번 캠프에서 이번호 코치의 지도로 프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

정해원은 "코치님과 훈련해서 너무 좋다. 이야기 하시는 것 다 귀담아들으려고 하고, 혼자 개인 운동할 때도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려고 한다. 중요한 사항이나 주자 있을 때 잘 챙긴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또 "좋은 모습 보여서 1군 스프링캠프 따라가는 게 1차 목표다.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하고, 형들에게 붙어서 많이 배우고 발전된 모습 보이겠다"며 "방망이 자신 있다. 스윙이 부드럽다고 생각하는 데 부드러운 속에서 멀리 친다. 무엇보다 보완해 가면서 내 것을 만드는 걸 보여드리고, 수비에서 더 안정감 있게 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월은 주루와 수비로 눈길을 끌고 있다.

빠른 발로 고교 무대를 휩쓸었던 김도월이지만 '달리기'가 이번 캠프에서 가장 힘들다.

김도월은 "확실히 훈련량도 많고, 체력운동이나 기술 운동도 기존과 많은 차이가 난다. 땀으면서도 힘들다. 가볍게 오래 뛰는 것과 단거리 위주로 뛰었는데, 400m도 하고 90%로 뛰어야 해서 체력적으로 힘들다"며 "아간 운동 끝나고 누울 때 좋는데 시간이 빨리 간다"고 웃었다.

빠르게 돌아가는 캠프에서 그는 매일 배우고 있다.

김도월은 "수비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세밀하게 송구하는지, 더 안정된 자세로 잡을 수 있는지 배우고 있다. 타격은 고등학교 때는 공보고 공치기였는데 변화구도 다르니까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지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자신 있는 게 수비와 주루다. 캠프에서 공격도 잘하면 좋지만 수비·주루에서 내 능력을 보여주면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1군 캠프 가서 박찬호 선배한테 프로 수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싶다. 도루왕도 하셨으니까 어떻게 뛰어야 할 확률이 높은지도 물어보고 싶다. 김선빈 선배의 수비도 궁금한데, 모든 선배한테 수비와 주루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도월은 '연습'으로 프로의 벽을 넘겠다는 각오다.

김도월은 "바운드를 잘라서 더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걸 잘한다. 더 정확하게 던질 수 있게, 송구와 디테일한 핸드링을 배우고 싶다. 또 타구 스피드도 다들 텐데 공금하기도 하고, 원래 빠른 타구에 자신 있어서 잘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내 능력을 다 보여주고 한계를 뛰어넘을 때까지 연습하고, 배우고 가겠다"고 언급했다.

대졸 신인인 김재현은 "고졸 루키"들보다는 더 차분하게 캠프를 소화하고 있다. 신인의 자세로 많이 성장하겠다는 각오는 같다.

김재현은 "몸은 힘든데 프로에 와서 첫 캠프가 재미있고 배운 것도 많다. 많이 배워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 훈련은 힘들지만 세밀하게 배우니까 얻어가는 것도 많고 프로를 실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격수 자리에서 활약했던 김재현은 수비에 세밀함을 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수비에서는 어깨가 좋아서 여유 있게 던지고, 타격에서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다"며 "더블 플레이할 때 스텝도 배웠는데 정확하게 잘 배운 것 같다. 수비에서 스텝을 많이 보완해서 내년에 잘하고 싶다.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왔다. 선배들과 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체육 미래 위해 젊은 열정 쏟겠다"

송진호 전 목포체육회장, 전남체육회장 출마 선언

송진호(59·사진) 전 목포시체육회장은 "공정한 체육지원, 투명한 체육행정, 인적중심의 조직운영을 통해 전남체육의 새 역사를 다시 쓰겠다"고 밝혔다.

송 전 회장은 16일 전남체육회관 3층에서 전남도체육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체육의 미래를 위해 젊은 열정과 체육단체에서 몸담고 활동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남체육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2020년 민선 체육회가 출범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체육활동은 침체되고 각종 대회가 취소되는 상황이 아쉬웠다"며 "활력 넘치는 전남체육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송 전 회장은 "내년 전국 3만여 체육인이 전남에 모여 기량을 겨루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체육회장이 필요하고 대회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체육회가 중심이 돼 전국체육대회를 완벽하게 준비하겠다"며 자신의 강인한 추진력과 인맥을 강조했다.

이어 "전남체육이 성장 발전하기 위한 공약으로 체육회의 재정자립을 위해 도예산 대비 일정 비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육진흥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학교체육 연계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 실업팀 창단을 통한 지역출신 국가 대표급 우수선수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선순환구조 마련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체육정책을 펼치고, 종목단체의 원활한 사무국 운영을 위한 권역별 거점 사무실을 개설하여 종목



단체 사무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실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체육회 사무처(국) 운영 및 체육인 복지를 위해 직원 사기진작과 공정한 인사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전 회장은 목포 문태고, 광주대 경제학과를 거쳐 고려대 언론대학원 신문방송학과를 수료했으며 현재 전남도해양레저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대한체육회 제40대 남북체육교류위원회 위원, 제22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사연구위원, 전남육상연맹 제1대 통합 회장, 민선 제1대 목포시체육회장을 역임했다. 김대중 총재 표창장, 대통령 표창, 대한육상연맹 공로상을 수상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청 펜싱 최세빈, 월드컵 사브르 단체전 동메달

전남도청 펜싱 사브르팀 최세빈이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남도청 펜싱협회(회장 윤영철)는 "최근 알제리 알제에서 열린 국제펜싱연맹(FIE) 시즌 월드컵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 전남도청 최세빈이 출전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16일 밝혔다. 최세빈은 전은혜(대구시청), 윤지수·홍하은(이상 서울특별시청)으로 구성된 여자 사브르 대표팀 멤버다.

대표팀은 16강전에서 45-27로 그리스를 꺾는데 이어 8강전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을 45-33 제압,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어 준결승에서 '펜싱강호' 이탈리아에 32-45로 패해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남자 사브르 대표팀인 김정환, 구본길(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 오상욱(대전시청), 도경동(대구시청)은 결승에서 이란을 45-34로 제압,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한민국 펜싱 사브르 대표팀. 윤지수(왼쪽부터)·전은혜·최세빈·홍하은.

<전남도체육회 제공>



제15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우수대회 등타(넘어뜨리기) 부문 준우승을 차지한 전남도청 우수팀(왼쪽 3명과 우측한 총북개발공사 선수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도청 우수, 회장배 단체전 준우승

전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팀이 전국 우수대회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청 우수팀이 '제15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우수대회' 등타(넘어뜨리기) 부문에서 단체전 2위에 올랐다.

남도(한쪽칼날 표현동작) 2위, 남권(맨손 표현동작) 3위, 태극검(양쪽칼날 표현동작) 부문 2위에 올라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전남도청 우수팀은 올해 신설된 등타 단체전 종목 결승전에서 총북개발 공사에 석패했다.

하철환이 먼저 2점을 획득해 진민섭(총북개발공사)을 이긴데 이어 김민수가 함관식(총북개발

공사)에게 큰 기술을 구사했지만 점수로 연결되지 않았다. 결국 체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해 1-1로 팽팽한 접전을 했다. 하지만, 고은철이 송기철(총북개발공사)에게 패해 최종 스코어 2-1로 등타 준우승을 차지했다. 투로 종목에서는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전남도청 우수팀은 2019년 창단 이후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금 1, 은 1, 동메달 1개를 획득했고 제103회 전국체전에서 금 2, 은 1,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주장 윤운진은 2019년 세계우수선수권대회 산타 -56kg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데시벨
2관	데시벨
3관	폴: 600미터, 자백
4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5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극장판 쟁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범악학교
6관	동감
9관	동감
7관 씨네커를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심야카페: 미성 허니
8관 씨네커를	한산 리덕스, 김덕2: 아득한 대지로, 극장판 쟁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범악학교, 인생은 아름다워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회·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⑥

뷔에르 앙상블

일시 : 2022. 11. 21.(월) 19:30

장소 :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 062-613-8235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37회 정기공연 영아오페라 시리즈 1

피노키오

일시 : 2022. 12. 2.(금) 19:30

2022. 12. 3.(토) 15:00 / 19:00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613-8246